

제25대 총학 정·부회장

최순호 · 이상효조 당선

총투표율 55.2% 역대 최고 득표차 2천6백9표 내년도 학자사업 활발히 전개될 듯

제25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에 '민주정부' 단결의 발걸음으로, 동국중흥/건설을 노래하니 애국의 뱃머리여 승리의 내일을 약속하라'는 슬로건으로 임후보인 기호2번 최순호(국4) 이상효(아간 무역3) 조가 3천6백62표(76.1%)를 획득, 기호1번 송지환(경영4)·김형진(사회3) 조의 1천53표보다 무려 2천6백9표차 앞서 당선됐다.

<관린인터뷰 11면>
지난 24·25일 양일간 실시된 투표를 거쳐 25일 오후 11시부터 다함판(2층 교수식당)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관인 등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 선거지역구별로 개표가 시작됐다.

먼저 동국관앞에서 진행된 제1지역구(법대, 사과대, 경상대, 농대, 예대 미술학과) 개표에서 기호2번이 1천34표로 기호1번의 4백80표 보다 무려 5배 54표를 앞서 다른 지역구의 개표결과를 집적해 했다.

이어 제2지역구(법대, 문대, 이과대, 예대 연영과) 개표에서도 역시 기호2번이 6백94표 차로 기호1번을 앞서 기호2번의 당선이 굳혀져 갔다. 곧이어 제3지역구(공대, 사법대)에서는 무려 9백11표차를 나타내 기호2번의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후 제4지역구(아대) 역시

기호2번측이 앞섰다. 개표는 다음날(26일) 새벽 2시45분경 모두 끝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동관한대행 최종(선4)군의 기호2번 최·이조의 당선확정 선언으로 종료됐다.

이번 제25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선거의 총유권자는 8천7백16명으로 이중 4천8백10명이 투표해 55.2%의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63.72%의 투표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예년보다 선거기간이 짧고 시험등의 기간이 겹쳐 중앙선거관리위가 당초 예상했던 52% 투표율에 거의 적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호2번측에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낸 곳은 제4지역구(아대)로 87.8%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또한 비교적 낮은 지지를 보낸 곳은 제1지역구(법대, 사과대, 경상대, 농대, 미술학과)로 66.9%의 지지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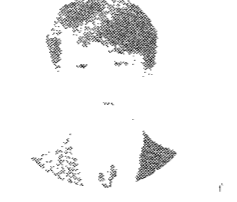
한편 임후보자등록마감일이었던 지난 16일부터 실제 선거 운동기간이 5일밖에 안되는 급박한 여건 속에서 치뤄진 선거 때 많은 학생들이 회의적이었으며 따라서 제25대 총학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투표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제25대 총학생선거 오늘(25일) 개표된 기호2번 최순호 이상효 조가 76.1%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사진은 1차유세 장면>



최순호 총학생회장



이상효 부총학생회장

투표율이 저조한데는 중선위 뿐만 아니라 양측후보 선거운동의 경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키기만 했지 학생들 스스로를 선거에 참여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대 최고의 득표자를 보인 이번 선거는 올 24대 총학 생회의 위상과 사업진행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회의적이었으며 따라서 제25대 총학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투표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취재부>

종단 경주권노선안 철회성명

대책위 공단항의 방문등 강경 대응

경주캠퍼스를 통과하는 정부 고속전철 경주권노선안(비교노선)을 둘러싸고 학교당국과 공단측의 마찰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문제가 범종단차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단은 지난 23일 원로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경주역 재단사무처장, 이순용(법학) 교수회장, 최현자(신학) 정각원장 등 학교당국 관계자 및 동불연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종단측은 원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공단측의 비교노선안에 대해 학교당국, 학생대책위의 입장과의 견해를 표명후 고속전철의 경주캠퍼스 통과 노선안 철회와 철회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학생대책위는 지난 20일 오후 2시경 '고속전철 경주캠퍼스 통과저지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학생·직원노조원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 앞에서 열고 공단항의방문을 전개했다. 이날 공단측은 노선수정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확실하지 않은채 학교당국이 비교노선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선안을 제시한다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단측은 지난 23일 경주 서리별 문화회관에서 '정부고속전철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간담회, 경주시의회, 시의회 대표, 학교당국·학생대책위가 참석한 가운데 열고 지금까지의 사태수습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93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 시작

입시경쟁률 평균 4대1 보일듯

본교 93학년도 신입생 입학 원서접수가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실시됨에 따라 서울·경주캠퍼스 교부처는 양 캠퍼스 체육관내에 원서접수장을 설치, 각 계열별로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93학년도 모집인원은 서울캠퍼스가 총52개과 2천3백50명, 경주캠퍼스가 총33개과 1천6백90명으로 총 4천40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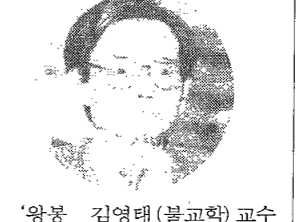
25일 현재까지 원서접수통계에 의하면 3천1백57명이 지원해 0.78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원서마감을 앞둔 오늘(25일)까지도 한산한편이어서 막판 장구 혼잡이 예상된다. 이는 94년도 대입제도의 변경을 앞둔 수험생들의 지원결정의 어려움을 때문이었으나, 경쟁률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평가원은 올해도 문제의 난이도를 낮추어 출제하겠다는 출제경향을 밝혀 작년의 고득점 합격현상이 재현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올해의 경우 조정된 입시요강에 따라 전기전형으로만 치뤄지는 이번 입시는 동일계열에 한해 제2지망이 가능하지만 사범계열과는 비사범계열학과와 교차지망이 불가능하다. 또 연영과가 이과·연출, 연기·가수전공생 분리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영태교수 화갑기념

논총 봉정식



'왕봉' 김영태(불교학) 교수 화갑기념 논총 봉정식이 오는 12월3일 타워호텔(1층 겐로바

피수동정

△한상범(법학) = '현대 환경문제와 불교의 인성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3회 한일 불교학술회의에 참석차 내달 4일부터 7일까지 일본에 체류.

△김창수(역사교육) = '구한말 사서에 나온 민족의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본구국사학회 1992년 대회에 참석차 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출국.

보리수

마음의 들뜸(擡擡)과 혼미함(昏沈)은 불교 수행자들이 크게 경계하는 두 가지 번뇌이며 장애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현대인을 또한 떠나할 수 없는 번뇌가 있다. 거친 욕망과 나쁜 습관이 그것이다.

인간의 거친 욕망은 팔간대를 보른다. 방향이나 목적 설정 없이도 그것은 마구 뛰고 내달아 갈 뿐이다. 욕망이 인간 삶의 원동력인 것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거친 욕망은 혼미 자신을 과열케하고 자칫 남에게까지도 화를 미치는 수가 있다.

나쁜 습관은, 그런 뜻에

서러면 미치는 피해 범위가 좁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삶은 고인 물과도 같다. 강에 이르지 못하고 썩어가는 물은 이미 죽은 물이다. 남은 그만두고라도 자신의 욕망에도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기 길들이기

수행자들이 들뜸과 혼미함을 경계하며 차분하고 또렷한 정신으로 정진해가듯이 거친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주지않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모든 생활인들이 힘써야 할 삶의 수법이다. 이 또한 수행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

는 적절한 방법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바로 '자기 길들이기'로부터 시작해 나가야 한다.

자기 길들이기란 곧 혼수(昏沈)를 말한다. 정신을 묶었던 새끼트락에서 비뚤어지고 나고 향을 썼던 종이에서 향내

신 그리고 이상 그 어느 것도 한정되어 있지 않다. 무한히 동성의 존재 그 자체가 때때로, 길들이고 혼수하기가 따르는 결국 부처를 이루는 일까지도 가능한 것이 곧 우리의 인간인 것이다.

대학은 머지 않아 또 긴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불가에서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기 위해 결제(結制)를 하듯, 우리는 이 방학 동안 자기 길들이기를 위한 결제기간으로 삼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 기간에 거친 욕망과 나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자기 길들이기가 계속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방학(放學)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소중함 공부라 시작하는 일이 될 것이다.

李 達 春

제7회 동대문학상 입상자 발표

본사가 東國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한국문단을 이끌어 나갈 참신한 문장을 발굴하고자 제정한 '제7회 동대문학상' 입상자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 입상자 명단
- <시부>
- ◇본 상 : 지방현(불교대 불교학과 1년) '편지편편'
- ◇장려상 : 이음서(사법대 국어교육과 2년) '가을이집'
- ◇장려상 : 정명섭(문과대 국어국문학과 4년) '사랑법'
- <소설부>
- ◇장려상 : 김지현(인문대 국어국문학과 2년) '날아가는'
- <평론부>
- ◇입상자 없음
- 심사위원 명단
- ◇시 부 : 이형기(시인·문과대 국문과 교수)
- 김정호(시인·사법대 국교과 교수)
- ◇소설부 : 홍기삼(평론가·문과대 국문과 교수)
- 한용환(소설가·사법대 국교과 교수)
- 시상일시
- 1992년 11월 30일(월) 오후 3시 총장실
- * 입상자는 시상 당일 오후 2시 30분까지 본교 학생회관내 동대신문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대신문사

좋은 기업, 그곳엔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캔미팅

캔미팅(Can Meeting)은 부서장을 포함한 일정한 조직 구성원들이 수시로 일상의 업무경로상 만나 모든 업무활동과 관련된 장소에서 회사업무는 물론 개인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의 독특한 기업문화입니다.

현재 전경의 모든 부서에서 실시되고 있는 캔미팅은 회의성명을 통해 조직의 경직화 및 권위화를 미리 막고 목표에 대한 일체감 조성은 물론 스스로를 있는 의의정교를 통해 인간적 유대감을 형성, 합법적 관리자의 정신을 살리고 있습니다.



“일년에 세번씩 평사원으로 돌아가는 정부장”

마른 채구때문에 흰철한 키가 더욱 커보이는 신경인(신사부) 정대수부장. 매사에 빈틈없고 아무런 일거리 때문에 까다로운 부장'으로도 통합니다.

이제 40대 중반이 다된 정부장이지만 일년에 세번씩 열리는 인사부 캔미팅에서는 평사원의 자리로 돌아가입니다. 캔미팅에서는 직위의 상하 구별없이 모두가 대등한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장은 그때마다 때마침 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평소 산을 좋아하는 정부장이 맑은 땀을 흘리며 산악반 산행에 동참하게 된 것도 지난 봄 캔미팅때 김민수씨의 권유에 의해서

였습니다. “부장님은 형식적으로 가입 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산악반의 일원입니다. 전체 산악반의 단합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됩니다”

산악반 리더격인 김민수씨의 당찬 항의에 절절매던 정부장. 요사이 평소보다 결제서류의 처리 시간이 훨씬 빨라진 것은 염태리의 건의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캔미팅 날이면 간간한 정부장도 곤경에 처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서로의 가슴속에 신뢰의 돌을 하나 둘 쌓아가는 과정임을 잘 알고 있는 정부장은 직원들과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캔미팅이 기다려지기만 합니다.

SUNKYONG
鮮京그림

특집 심각한 공간부족과 해결방안

공간부족 '사태'

학과 신설로 강의실 부족 심화될 듯 "교수연구실·과사무실 확보 급하다" 효율적 재배치로 활용효과 높여야

강의동 하나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좁은 공간에 위치한 본교 5층이내로 중축을 할 수 밖에 없는 '남산제도 습격'은 본교의 공간부족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신규교수채용에 따른 교수연구실 확보를 고민하는 학교당국. 전공수업업조차 소속 단과대 건물에서 받지 못하는 학생들. 행정부서가 줄고 중앙강당에서 열리는 공연이 행정업무를 방해한다며 중앙강당 이전을 요구하는 대학본관 직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지금 학내 공간부족에 대한 점검을 해본다.

공간부족사태

문과대·이과대가 사용하고 있는 명진관은 과학실험실 전부를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고 과사무실, 독서실, 소모임실은 전무한 상태이다.

과사무실이 따로 마련되지 못해 교수연구실에서 수강신청, 성적처리 등 행정업무를 보는 문과대 한 조교는 "교수·학생간의 긴밀한 연락과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 독립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지난 1학기까지 동국관에서 전공수업을 받은 국민유리학과 학생들은 "전공강의가 타단대에서 있어 문과대에 대한 소속감을 갖지 못했다"면서 "전학한다던가 강의실을 사용하길엔 너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한편 동국관(M동) 1층 공간에

대한 학생과 학교측의 마찰도 조짐스레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동국관(L동) 중축으로 인해 생긴 이 공간은 학생·학교측의 합의를 통해 그동안 학생자치공간으로 쓰여왔다.

이에 대해 교무처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신규교수채용에 따른 교수연구실의 부족을 이곳에서 해결할 운반한다"고 말하는 한편,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과대 한 학생은 "학교측과의 합의를 통한 것이므로 양보할 수 없다"면서 "공간배치 문제는 학생들의 의견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동국학술문화관과 미술학과

예술대, 대학원, 인문 사회계열 1개단과대가 들어서게 될 동국학술문화관은 오는 12월말 늦어도 내년 초 착공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예술대건물의 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술학과 강의실, 실습실 확보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측은 지난 3월 미술학과 학생회에 내년도 강의실·실습실을 동국관, 해학관, 수경장에 마련할 것을 통보했고 지난 9월엔 교무위원회를 열어 75일, 9교시 수업실시동의 내년도 1학기 미술학과 강의시간표를 작성했다.

단일공간 확보를 요구하는 학생측은 "학술문화관 건립계획에 1백

50여억원을 책정했음에도 3억5천만 원이 소요되는 기건물 설비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획조정실 한 관계자는 "어려운 학교자금사정을 감안해 예산을 절감하고 동국관, 해학관의 강의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밝히면서 "기건물을 지을 부지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관을 사용하는 5개 단과대 학생들과 해학관의 동과대 학생들도 미술학과 본산이전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동과대 한 학생은 "동대 학생·교수들은 미술학과와 해학관이전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학생회 사업을 위해서도 미술학과 단일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복방안

교수·학생동 학내 제재들은 동국학술문화관의 건립에 따른 공간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간의 이해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우려도 있다.

대우이 학술문화관 공사기간중의 강의, 신규교수채용에 따른 연구실 확보, 학과신설에 따른 강의동 부족 등 제 공간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학내 제재들의 요구가 조화된 공간확보가 중요하다.

먼저, 체계적 공간배치를 위해 앞을 내다보는 학교행정이 요구된



동국학술문화관 착공을 앞두고 학내 구성원들의 공간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좁은 캠퍼스에서 각 주체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을 공감하고 있으며 효율적 공간배치로 확보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사진은 미술학과 학생들의 공간확보 신진전 모습>

다.

특히 다가오는 학과평가인정제를 대비해 이공계열 실험실습실을 부족한 공간에 설치하기 시작한 것은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여론이 높다.

문과대 한 학생은 "강의실이 부족한 명진관에 이과대 실습실을 설치한 것은 눈앞의 일에만 급급한 학교행정"이라는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물론, 학생자치공간이나 교수연구실 등의 효율적인 재배치가 필요하다.

강의실, 교수연구실, 학생회실, 과사무실간의 거리를 가깝게 유지하는 노력과 학과 공부방들을 묶어 단대독서실로 활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본산내 교수연구실을 한데 모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과 학교측의 원활한 대화로 공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동국관(M동) 1층의 사용문제는 양자간의 대화없이 시간만 흐르는 상태이다. 팽팽히 다른 입장에도 구체적인 대안없이 내년도 신규교수를 영입할 경우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공과대 한 관계자는 "3년전 원흥관 증축사업에도 많은 기대를 갖었으나 결국 서로간의 이해타산으로 인해 별다른 공간확대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학생·학교간의 대화를 강조했다.

공과대 한 관계자는 "3년전 원흥관 증축사업에도 많은 기대를 갖었으나 결국 서로간의 이해타산으로 인해 별다른 공간확대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학생·학교간의 대화를 강조했다.

전체건물에서 강의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강의실 이용률은 55% 정도이다. 내년엔 야간정보관리학과 신설로 강의실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에 강의실 이용률을 6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상현 기자>

동국학술문화관 추진경과

지상5층 지하2층 규모

최소 1백억 공사비 마련이 난제

동국학술문화관 건립공사가 올해 말 기초토목공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3일 계약을 체결한 간산종합건축사(주) 측은 제출한 조감도와 투시도를 통해 기본 골격으로 지상5층, 지하2층 건물구조를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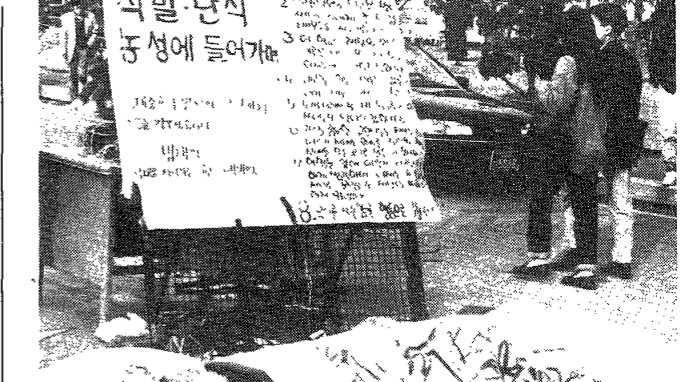
그러나 공간확보가 급선무인 학교측은 지상6층이상의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현 정구장 자리를 지어 3층으로 조성·주차공간 확보를 검토할 것을 설계사에 제안했다.

이후 학교측 협의 대표기구인 자문회의측과 설계사는 협의를 통해 추가공사비(총액)가 과다하며 재량이 힘들다는 설계사의 의제기로 최종 지하2층 건축으로 합의했다.

또한 기존 지하 주차장 설치권이 백지화되면서 지상에 최대한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지하공간은 일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이에 지상 주차·공간으로는 동국관으로의 오르막길과 학술동, 연구동, 문화동 사이의 공간에 1백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밖에 기본 골격인 지하층의 변동으로 기존 용도에 따른 면적을 재



공간확보를 위한 재단·학생간의 정기적 안목을 갖는 합의없는 학교발전은 요원하다. <사진은 외대대식농성장면>

모범사례 한국외대 학자투

92학년도 1학기 시작과 함께 진행돼 온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원지주회 투쟁(이하 학자투)은 지금까지 장기화돼 왔다.

학자투의 시발은 매년 제기되는 학기초의 등록금부족에서 비롯되었는데, 올해의 등록금부족은 4차례에 걸친 학교측과의 협상결렬, 단과대들의 불신임결의로 총학생회가 사퇴하는 등 학생들의 어쩔 수 없는 양보상황으로 종결을 맺었다.

재단부지 개발에 학교·학생 공동노력 합의

이후 2학기에 접어들어 외대학자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움직임이 구체화되었다.

2학기 학자투의 주요골자는 캠퍼스 이전에 대한 논란으로 압축될 수 있다. 즉, 자곡동으로의 캠퍼스 이전문제에 대해 학생측은 도시개발규제에 묶여 있는 자곡동 토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공동노력하여 이전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반면, 학교측은 이에 난색을 표하며 단지 '교육용 부지'로만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은 계속 심화되어 범의대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였는데,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공간문제의 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 학내여론이 드높아졌다.

학내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외대발전위원회'의 건립이 학생들에 의해 제기되고 학생들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정책쟁점화시켜 부지확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해 왔다.

학교측과의 지속적인 협상 도중, 지난 10월23일에는 파업을 결의하

회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생행정참여를 보장하고, 서울은 인문캠퍼스로 용인은 이공계 캠퍼스로 특화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자곡동 캠퍼스 이전문제와 함께 거론된 용인캠퍼스로의 이전은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혀 거의 철회된 상태이다.

합의안을 도출시키면서 학생측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학교가 아닌 재단측 '교육용 부지'로만 활용되는 자체적인 정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의 격렬했던 외대학자투는 본교의 학자투였고 현재 학내의 재단상황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한다.

재단임금문제도 항상 대결국면을 빚어온 본교의 상황이고 보면, 외대의 상황은 결코 '강 건너 불로 건과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남은 학교건물, 강의실의 절대부족의 진행을 겪고 있는 본교에 있어서도 학자투의 새로운 발전국면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조호웅 기자>

실·실

본지 1105호 4면 기사중 '전후원회 신도되라 회유에 교사를 독립결정'은 사실과 다르며 이로인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은 섬돌아학과 전후원회에 사과드립니다.

동막로

"엔 부재자?"
"부표해서 뭐냐? 부표한다고 뭘 바라는 것도 없는데..."
"부표일이 금요일이던데 주말 여행이나 가자, 야."
지난 23일부터 민자당 재집권 지지의 민주당 부수입을 위한 경주캠퍼스 운동본부에서 받고 있는 제14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신고수 주변을 지나던 학생들의 대화.

"방학중 아르바이트나 방중 집중학습으로 인해 외항에서 부표를 하지 못하는 학우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청한 주권을 포기하지 말고 이곳 경주에서 주권을 행사합시다"라고 외치는 운동본부의 한 학생은 정지에 부표신청한 학우들을 한명이라도 더 부표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전 부표일이 없는데..."

관심과 무관심



"혹시 낭랑18세라고 아세요? 투표권을 만18세로 낮추자는 건 대립 차원의 운동인데요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18세부터 지게되는 반면 주권행사는 만20

보여 줄것을 호소했다.

부표일이 있음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학생. 부표일이 없어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학생의 비교된 모습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역시에서 주체로 유목했던 청년학생들이 요즘들어 개인주의적 사고로 자기중심의 행동이 팽배해짐으로 인해 청년학생들에게 부여된 역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하지 못하는 대학생·재수생의 숫자는 1백80만, 젊은층이 야당 성향이 강하고 변화의 의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 현정론은 선거연령을 만20세로 고집하고 젊은층의 투표관가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운동본부 한 학생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청년학생들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패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박선경 기자>

●지출부 1991. 11. 01부터 1992년 10. 31일까지			
계정과목	내 용	금 액	
인건사업	구속학우 말/김치 보내기	628,400	
	인건행사/단체지원	1,918,600	
	부상자 안정 무료 지원	810,000	
	계	2,547,000	
장학사업	우정장학/작과 1인	21,400,000	
	복지장학	9,800,000	
	장기장학적립	29,400,000	
	계	60,600,000	
교육사업	여학/기타/기타	49,258,000	
	안정점/복사실등 시설확장	46,304,000	
생활문화	귀향마당	8,084,000	
	대동마당	3,095,000	
	기타 행사	1,720,000	
	계	12,899,000	
선전사업	복지실문	355,000	
	연하장	1,802,000	
	학보비	800,000	
	기타기판지	805,000	
	계	3,762,000	
연대사업	총학생회지원/신입OT/출범식	3,415,000	
	낙산학사 신발장	1,490,000	
	체육부지원	1,000,000	
	대학생형	3,000,000	
	코끼리 아저씨 지원	2,272,000	
	단위지원/영화/벽화	1,030,000	
	공동구매사업	1,467,000	
	기타연대사업	456,000	
		계	14,130,000
	경상비	위원활동비/달 30,000원	2,320,000
각종행사		1,340,000	
선전복사		1,882,000	
회의비		693,000	
출장/연수/경조사		642,000	
사무실공사		250,000	
기타경상비		607,000	
	계	7,734,000	
총 계		197,234,000	

92년도 제8대 학생복지위원회 결산서

●수입부 1991. 11. 01부터 1992년 10. 31일까지		
계정과목	내 용	금 액
전기이월	현금과 예금	35,829,000
	장기 장학적립금	14,671,000
	계	50,500,000
직영매장	당기 자판기 이익 잉여금	44,502,000
수익매장	복사기	34,732,200
교육사업	안정점	10,000,000
	기획사/기타	2,601,800
후원금	여학/기타/기타	59,700,000
	거래업체후 원금	15,050,000
연대사업	귀향접수/후원	6,919,000
수입이자	통장이자	2,011,000
기타지원금	잡수입	1,876,000
총 액		227,892,000

●직영매장 1992년 3월1일부터 92년 10월1일까지					
계정과목	자 판 기	식 당	보 리 수	다 락 방	총 계
매 출 액	381,355,765	344,615,924	155,264,010	100,818,950	982,054,649
매 출 원 가	236,169,379	235,884,892	113,410,822	77,658,591	663,123,684
매 출 이 익	145,186,386	108,731,032	41,853,188	23,160,359	318,930,965
판매관리비	72,745,460	98,291,447	32,269,685	8,652,330	211,958,922
영 입 이 익	72,440,926	10,439,585	9,583,503	8,652,330	106,972,043
영입외수익	7,637,686	8,807,527	541,993	547,235	17,534,441
영입외비용	337,590	1,059,990	*10,176,500	242,700	11,816,780
당기순이익	79,701,022	18,187,122	-50,704	*14,812,564	112,650,004

*보리수 주방/매장 확장 비용 지출로 적자
*관리비/지배인, 정리 비용 보리수에 포함되어 이익 과대계상
*기초/기말 재고 포함 안됨
*이익분배: 44,502,000회사업지원(안정, 복사실 시설투자, 장학금)
*기타: 통장 잔액 회계기간중인 판계로 이익이제본

제8대 학생복지위원회

정권교체 기대속에 관권선거 우려

본사에서는 12월18일에 실시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92대통령선거기획을 연재하고 있다. 87대선거권이 주는 교훈, 좌담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이어 기획연재 마지막은 서울캠프 재학생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20, 21일 양일간 실시된 설문조사는 무작위 추출로 본교 서울캠프 재학생에게 4백부가 배포됐으며 3백48부(87.0%)가 수거되었다. 설문결과 상별로는 남학생 2백42명(69.5%) 여학생 1백6명(30.5%)이 설문에 응했으며 학년별로는 92학번 69명(19.8%) 91학번 70명(20.1%) 90학번 60명(17.2%) 89학번 44명(12.6%) 88학번 40명(11.5%) 87학번 40명(11.5%) 86학번이상 25명(7.2%)이 응답했다.

설문장소는 중앙도서관, 각단과 대도서관, 학생회실로 한정했다. 내용은 개인정치성향, 사회참여의식에 대한 의식, 92대선거권 등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결과 분석용 퍼센트는 소수 둘째자리 반올림이며 한문항에 2개 이상의 응답이 있을경우 무응답처리했다.

<편집자>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관심이 있다(85명, 24.4%) 관심있는 편이다(2백3명, 58.3%)가 전체 82.7%로 학생들의 정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심이 없다(55명, 15.8%) 전혀 관심이 없다(5명, 1.4%)는 17.3%로 집계됐다.

정치성향과 후보방침

자신의 정치성향이 어떠한지 질문은 △중도파이다(1백99명, 57.2%) △진보파이다(1백18명, 34.2%) △보수파이다(26명, 7.5%)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각 정치성향과 92대선거에서의 적합한 후보방침을 묻는 질문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진보적'이라고 답한 1백19명의 학생(100%)은 적합한 후보방침을 △범민단일후보안(44명, 37%) △독자후보안(36명, 30.1%) △당선가능한 야당지지(30명, 25.2%) 순으로 응답했다.

'중도적'이라고 답한 1백99명(100% 환산)의 학생들은 후보방침에 대해 당선가능한 야당지지, 범민단일후보안을 각각 70명(35.2%), 독자후보안을 19명(9.5%)이 적합하다고 응답했으며 보르르라고 응답한 학생은 34명(17.1%)이었다.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26명의 학생중 9명은 당선가능한 야당지지, 6명은 범민단일후보안이 적합하다고 지적했으며 독자후보안이 적합하다는 학생은 한명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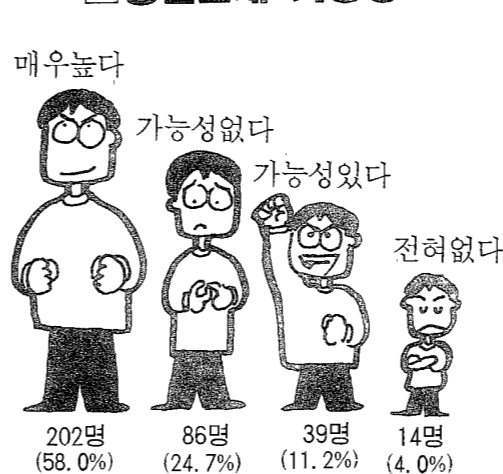
자신의 정치성향과 적합한 후보방침 질문간의 상관관계는 진보적이라고 답한 학생일수록 독자후보안의 지지율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선가능한 야당지지와 범민단일후보안이 선호됐다.

3월 제14대 총선에서의 투표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1백97명(56.8%)이 '참여했다' 68명(19.5%)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한편 투표하지 않은 이유는 '스치지 못하는 후보(또는 정당)가 없어서'(26명) △제도정치권의 불신(19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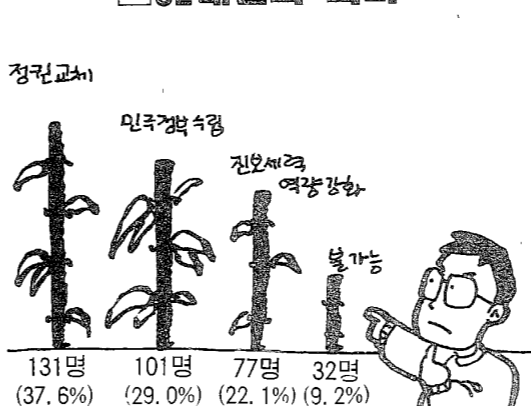
□ 적합한 후보방침



□ 정권교체 가능성



□ 92대선의 의미



92대통령 선거

3) 설문조사 : 동국인 정치의식

배지, 약속 등 다른 이유(1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투표권이 없었다면 80명의 학생중 68명(85.0%)이 '투표권이 있었다면 투표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3월 총선에서 지지했던 정당은 △민주당(1백53명, 44.0%) △민중당(48명, 13.8%) △보수속(35명, 10.1%) △민주당 국민당(24명, 5.5%) △신정당(6명, 1.7%) 순으로 나타났다.

92 대선

12월 대선에 참여할 것인가는 질문에 대해 81.6%인 2백84명의 학생이 '투표하겠다'고 밝혔으며 34명(9.8%)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이번 대선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7명(2.0%)이었다.

한편 대선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2백61명(75.0%)이 투표권행사, 53명(15.2%)이 공명선거운동참여, 18명(5.2%)이 후보선거운동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92대선이 갖는 의미는 1백31명(37.6%)이 정권교체라고 대답했으며 1백1명(29.0%)이 민주정부수립의 계기, 77명(22.1%)이 진보세력 영향강화계기라고 밝혔으며 '선거로는 사회개혁이 불가능하므로 의미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32명(9.2%)이었다.

대통령후보선택에 있어서 제일먼저 고려하는 것은 △그동안 사회민주당에 노력한 경력(97명, 27.9%) △개인적 자질(92명, 26.4%) △정책공약(89명, 25.6%)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속정당, 당선가능성을 각각 34명, 21명이 제일먼저 고려한다고 답했다.

지지하는 후보는 △김대중(1백29명, 37.1%) △백기완(74명, 21.3%) △정주영(32명, 9.2%) △이종찬(18명, 5.2%) 순이며 김영삼 후보

는 4.0%의 지지율로 최하위를 보였다. 그러나 당선가능한 후보로 △김영삼(1백70명, 48.7%) △김대중(1백27명, 36.5%) △정주영(107명, 2.9%)을 꼽았으며 민중대통령후보 백기완씨가 당선될 것이라고 답한 학생은 9명(2.6%)이었다.

대선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에 대해 1백55명(30.2%)의 학생이 '관권선거'를, 81명(23.3%)이 '지역감정'을, 78명(22.4%)이 '부정선거(군부재자

'대선때 투표하겠다' 81.6% 야당·범민단일후보 지지 65.8%

투표, 표바뀌지)를 우려했으며 언론의 불공정 보도, 금품살포가 우려된다고 답한 학생은 각각 48명, 30명이었다. 특히 '관권선거'를 우려하는 학생이 전체 30.2%로 수위를 보인 것은 노대통령의 탈당이나 중립대각수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비춰진다.

민주당과 민중대통령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저조지 지한다(40명, 11.5%) 지지한다(1백48명, 42.5%) 지지하지 않는다(1백27명, 29.3%) 결과 지지하지 않는다(50명, 14.4%)로 지지하는 학생(1백88명, 54.0%)이 지지하지 않는 학생(1백52명, 4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지하는 이유는 '김대중'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세력(1백35명, 71.8%) △김정환 경우 사회민주당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41명, 21.8%) △제1야당으로서의 입지(17명, 3.7%) 순이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정권교체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없어(74명, 48.7%) △기회주의적 속성(49명,

32.2%) △기타(24명, 15.8%) 순이며 기타의견은 '김대중 개인적 자질' '제도정치권의 한계' 등이었다. 민중운동진영(민중대통령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지지한다'는 학생이 1백49명(42.8%), '지지하지 않는다'는 학생이 1백92명(55.2%)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적극지지한다(48명) △지지한다(1백1명) △지지하지 않는다(1백52명)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40명)이다. 지지하는 이유는 △사회개혁을 위한 대안세력(60명, 40.3%) △민중의 요구를 대변하는 정책공약 제시(47명, 31.5%) △제도 정치권의 불신때문에(35명, 23.5%) 순이었으며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현실정치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78명, 40.6%) △사회불안과 야권분열이기. 당선가능성이 없어(각 47명, 24.5%) △기타(16명, 8.3%) 순으로 나타났다.

진보세력 후보방침

진보세력의 후보방침에 대해서 1백20명(34.5%)의 학생이 범민단일

후보안을, 1백9명 (31.3%)의 학생이 당선가능한 야당에 대한 지지, 55명(15.8%)의 학생이 사회개혁을, 17명(4.7%)의 학생이 민중대통령후보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한다'와 '지지하지 않는다'는 각각 54명, 10명이었다.

92대선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에 관해서는 △매우높다(39명) △가능성있다(2백42명) △가능성없다(86명) △전혀없다(14명)로 '가능성있다'고 답한 학생이 2백41명(69.2%)로 나타났다.

한편 후보방침과 대선의 의미, 지지후보, 정권교체가능성 질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야당지지 1백9명의 학생중 대선의 의미를 △정권교체(58명) △민주정부수립(30명) △진보세력 영향강화계기(11명) △의미없다(8명) 순으로 보고 있으며 지지후보는 △김대중(69명) △정주영(14명) △백기완(6명) 순이다. 또 90명의 학생이 정권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17명의 학생은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범민단일후보안 1백20명의 학

◇대선 맞이한 불교계의 대응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불교계를 지목하고 있다. 지난 87년 대선에서 불교계는 노태우정권의 집권에 많은 기여(?)를 했던 아픈 전과가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의 전력으로 말미암아 불교계의 전통적 진여성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투명한 지지의향이 보이지 않고 있음에 따라 불교계의 향방은 후보의 당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만큼 각 정당은 불교계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이용이 적극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각 당 후보의 교계 지도자 접촉과 선

의 조직적 토대를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불교계는 각 당의 역량에 맞게 사업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불교계는 불교계와 불교계와의 협력이나 불교계와의 협력에 비추어 투표참여운동과 공명선거운동을 주요 활동내용으로 한다는 점이다.

11월 말까지는 상시적으로 활동 가능한 인력과 보조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인력을 선정, 교양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 기간 중에 지역별로 동부회와 공동연대 수준을 높여 최대한 대선실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적극적인 한표로

불교자주화 이룩해야

거용 신도조직의 결성이다. 지방 불교방송을 통해 공영을 매개로 주로 민주당과 국민당의 접근이 적극적이다. 교계 상층 지도층 또한 이번에도 예외없이 정치적 행보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지난 87년 선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김영삼의 노골적 종교편향 때문에 공개적인 친정부적 행위를 자제하면서 불교계로 각개 협력하는 양상을 띠는 점이다.

불교계는 이번 대선에 대한 기본 입장을 세가지로 잡고 있다. 첫째는 불교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민주당과 특히 김영삼의 종교편향에 반대하여 불교자주화의 기운을 높인다는 점이고, 둘째는 중앙상층부의 친정부적 행태에 반대하여 불교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세력은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대의에 적극 동참하여 민주정부수립에 보탬을 맞추는 것이다.

이에 지난 11월 10일에는 정당 초정 불교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민주당의 회계장외원, 국민당의 김진영의원과 함께 불교계의 입장과 정당의 입장을 청취, 토론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불교계에서 실시한 '제14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불교신자의식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불교자주화라는 불교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민족적 과제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대선의 불교자주화에 대한 연구성과와 활동가에 대한 친정교계의 성과를 토대로 불교계 주권 바로게 행사하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토대에 오는 12월 3일 불교계 창립 4주년 기념행사에 불교계 주권 바로게 행사하기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적극적인 가두집회와 사찰대중에 대한 홍보작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각 조직의 회원대중과 대중이 포괄할 수 있는 주변대중에 대한 직접적인 선전활동을 전개하여 1인당 불교자주·민주정부 부류 다섯표 확보, 1인당 청년불자 투표참여 10표 확보 등의 구체적인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전을 주요 활동영역으로 잡고, 앞서 나온 자료집과 소식지를 교양의 매개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광범위한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명하고 대중적인 선전전단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불민년부터 정권교체기로 그 중요성을 이어가겠다는 대통령 선거가 바로 눈앞의 현실로 다가와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불자들은 무엇보다도 각 당의 실정에 맞게, 각 당의 활동주체의 충실한 논의를 거쳐 사업을 기획·집행할 때이다. 불교계의 이해와 요구, 정서에 중용한 사업을 찾아내고 실천에 옮긴다면 각 당의 불교운동방향을 토대로 마련하는 것은 물론 민주정부 수립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불교자주화'라는 불교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민족적 과제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대선의 불교자주화에 대한 연구성과와 활동가에 대한 친정교계의 성과를 토대로 불교계 주권 바로게 행사하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불교자주화라는 불교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민족적 과제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대선의 불교자주화에 대한 연구성과와 활동가에 대한 친정교계의 성과를 토대로 불교계 주권 바로게 행사하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불교자주화라는 불교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민족적 과제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대선의 불교자주화에 대한 연구성과와 활동가에 대한 친정교계의 성과를 토대로 불교계 주권 바로게 행사하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불교자주화라는 불교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민족적 과제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대선의 불교자주화에 대한 연구성과와 활동가에 대한 친정교계의 성과를 토대로 불교계 주권 바로게 행사하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불교자주화라는 불교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민족적 과제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대선의 불교자주화에 대한 연구성과와 활동가에 대한 친정교계의 성과를 토대로 불교계 주권 바로게 행사하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불교자주화라는 불교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민족적 과제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대선의 불교자주화에 대한 연구성과와 활동가에 대한 친정교계의 성과를 토대로 불교계 주권 바로게 행사하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불교자주화라는 불교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민족적 과제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대선의 불교자주화에 대한 연구성과와 활동가에 대한 친정교계의 성과를 토대로 불교계 주권 바로게 행사하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불교자주화라는 불교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민족적 과제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대선의 불교자주화에 대한 연구성과와 활동가에 대한 친정교계의 성과를 토대로 불교계 주권 바로게 행사하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불교자주화라는 불교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민족적 과제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대선의 불교자주화에 대한 연구성과와 활동가에 대한 친정교계의 성과를 토대로 불교계 주권 바로게 행사하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불교자주화라는 불교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민족적 과제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대선의 불교자주화에 대한 연구성과와 활동가에 대한 친정교계의 성과를 토대로 불교계 주권 바로게 행사하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불교자주화라는 불교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민족적 과제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대선의 불교자주화에 대한 연구성과와 활동가에 대한 친정교계의 성과를 토대로 불교계 주권 바로게 행사하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불교자주화라는 불교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민족적 과제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대선의 불교자주화에 대한 연구성과와 활동가에 대한 친정교계의 성과를 토대로 불교계 주권 바로게 행사하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불교자주화라는 불교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민족적 과제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대선의 불교자주화에 대한 연구성과와 활동가에 대한 친정교계의 성과를 토대로 불교계 주권 바로게 행사하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불교자주화라는 불교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민족적 과제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대선의 불교자주화에 대한 연구성과와 활동가에 대한 친정교계의 성과를 토대로 불교계 주권 바로게 행사하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불교자주화라는 불교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민족적 과제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대선의 불교자주화에 대한 연구성과와 활동가에 대한 친정교계의 성과를 토대로 불교계 주권 바로게 행사하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입시수험생 숙박시설 안내

<서울캠 무료민박>

직원 노동조합에서는 본교 서울캠프를 지원한 지방출신 수험생들의 숙박 및 교통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직원 및 학교 주변의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수험생 무료 민박을 실시합니다. 민박을 원하는 수험생 및 민박 제공을 희망하는 교직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민박일자 : 92. 12. 21 - 12. 22 (1박2일간)
2. 신청대상 수험생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수험생
3. 숙박장소 : 교직원 가정 및 학교주변 일반 가정
4. 접수장소 : 노동조합사무실 (전화 260-3577)
5. 민박제공 교직원 신청방법 : 등교 소요시간 30분 이내 거주 교직원으로 노동조합사무실에서 접수함.
6. 기타 : 민박회합 수험생 접수인원은 민박제공 인원을 감안하여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노동조합사무실(260-35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캠 직원노조

<경주캠 기숙사 이용>

매년 수험생 경주지역 숙박시설 부족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불편을 다스려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 대학교 기숙사를 개방하오니 수험생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 아 | 래 |
|--|---|
| 1. 숙박기간 : 3박4일 1992. 12. 20(일) - 12. 23(수) (1실3인) | |
| 2. 식사제공 : 8식 1992. 12. 20(일) - 21(월) - 22(화) - 23(수) (예비소집일) 1992. 12. 22(화) - 23(수) (시험일) 1992. 12. 23(수) - 24(목) | |
| 3. 금 액 : ₩40,000 (3박4일) 접수시 납부 (납부후 미입사시 환불 일체 불가) | |
| 4. 접수및 문의 : 기숙사 사무실 (전화예약은 일체 받지 않음) 전 화 : (0561) 770-2473, 770-2474 (02) 260-3031 | |
| 5. 접수기간 : 원서접수일(11. 23) 부터 수험생인원 한도 내까지 선착순 마감 | |
- ※참 고 사 항
1. 수험생에 한하여 숙박 가능 (학부형 숙박은 일체 불허함)
2. 청구(이불, 베개) 및 세면도구는 각자 지참 : 입사당일 구입가능
3. 스타일링 및 은수 제공함
4. 미입사 및 일정단축 귀가자는 일체 환불 불허
5. 도난 및 분실사고시 일체 책임지지 않으니 개인 소지품은 각자 책임 관리할 것
6. 모든 이용품은 기숙사 구매제품 (남, 여차량 각 1개소)에서 구입 가능함.

경주캠 기숙사감

대학원 어학학습 강좌

건강하고 성실한 학습활동을 지향하는 대학원 인문사회과학연구회에서는 어학학습의 다변화와 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강좌를 소개하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강좌	대상	시간	장소	내용
사회계열 영어모임	대학원진학 희망학부생	화. 금5시	인사연	책독해
인문계열 영어모임	대학원진학 희망학부생	변경중	인사연	책독해
대학원생 영어모임	대학원생	월6시	인사연	책독해
대학원생 영어모임	대학원생	화6시	인사연	책독해
한문모임	학부·대학원생	변경중	인사연	책독해
독어모임	대학원생	예정	인사연	책독해

1. 모집기간 : 11월23일부터
2. 연 락 처 : 동국관 L102. 인문사회과학연구회 상근자 (09:00-17:00) 전화 : 3095 (대학원 학생회실)

대학원 인문사회과학연구회

9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93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다 음
1. 기간 : '92. 11. 30(월) ~ 12. 2(수) 3일간
 2. 수강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소속대학 교학과, 학과
 3. 대상 : '92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 전원
 4. 유의사항 : 가. 교과목의 학습, 강좌번호, 학점, 납부 교수명 등은 정확히 기재해야 함. 나. 본 수강신청에 의해 분과 및 폐과과목이 선정되므로 필히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기 바람. 다. 제1학기 개인일 총합강의시간표는 소속학과에서 교부받기 바람.

교무처장

<6면에 이어>

빨간 램프가 한동안 켜져 있을 것이다. 탁상인생 빛은 또 할매집으로 달려 내려갔다. 술집 할매는 아침부터 술을 많이 내어 준다. 질적 질적 입가를 늘이면서, 우씨는 불을 붙이며 심호흡을 한다. 마 찬가지로 큰술 작은술 가까스로 돌아쉬며, 탄쟁이들의 머리 속은 밋밋 간의 제 해진 입금 속에 여편네의 쌍뚝을 어렵하고 있을것이 분명하다. 누구도 호흡에 음성을 신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소리치고 있었다... 죽어도 좋았다. 탄쟁이치고 죽는 것을 겁내지는 않았다. 아니, 꼭 내가 죽으란 보장도 없다. 불이 차면 차는데로... 그들의 생각은 하나같았다.

우씨는 취기에 구르듯 돌아왔다. 비가 틀이쳐서 방문을 밀던 우씨의 앞에 비는 그보다 먼저 틀어와 온통 흠뻑리고 있었다. 호들갑을 하며 뒤에서 여자가 문을 닫았다. 마호기니 방상에 서양 스펀으로 방상을 받고도 천둥소리 몇 번에 입맛을 잃었다. 방안이 더운 탓으로 젖었던 머리에선 김이 올랐다. 우씨는 탄쟁이들의 위험 수당에까지 생각이 닿자 작업 중지 빨간 램프에, 김소장의 단단한 입가에 지 생각이 자라면서 세삼스레 눈 꼬리에 번갈게 휘기가 들었다. 어느새 다가왔는지 여자가 스펀을 빼앗더니 풍풍거리며, 국을 떠넣는다 자반을 뜬어다 바쁘다.

"길주야, 길주야아. 일어나그라. 어서."
"저 아래 헛새덱 뒷담으로 가여."
엄마가 기두릴 것이여."
기다리고 섰던 뒷과부가 등을 떠다 밀었다.

우씨는 쉽지 않은 기본에 눈까지 질끔 감으며 받아 먹었다.

문밖에서 바람소리 높아지며 여자들의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덜컥된 누가 문을 열었다. 이어, 방상위로 술가락이 '탕'하고 떨어진다.

"헛!"
이미 여자는 퍼렇게 시금치 국을 쏟고 있다. 고개를 든 우씨에게 준금의 눈이 파랗게 타오르고 있다. 우씨는 잠깐 악몽이 아닌가 의심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어떻게 어떻게... 환풍 여자를 보았다. 구석에서 오뎅거리며 땀더니 이제 제법 정신을 차리고 있다. 준금은 우씨를 시선으로 좇더니 당장 여자에게 달려든다.

"미자 이녀인아, 이 죽일년, 죽일년인..."

"악, 악, 놈, 놈."

우씨는 더이상 참을 수가 없다. 준금이 이년인아... 순간 바깥 문 뒤로 낮익은 여인네의 한 얼굴이 있었다. 분명히 준금의 이웃인 여자다. 우씨는 후다닥 달아나는 것을 똑똑히 지켜 보았다. 준금을 향해 쫓기어려운 분노를 느끼면서.

이제 오늘이 야밤을 말하는 여러벌의 옷, 방상을 마주한 두 남녀. 분명히 우씨와 미자. 귀가 빠질 비명소리, 오히려 비명을 지른 것은 준금이었다.

...눈동자를 허영게 휘집으며 몸을 흔들어 사방으로 비명을 질러 울리는 저, 제 머리를 뜬어내는 저, 저, 미친 부당 같은 년...

"쉴새 없이 누군가! 뺨을 세차게 맞는 소리가 났다. 가까스로 눈을 모으니 자신의 뺨에서 울리는 소리다. 우씨의 왼손은 아직도 포퓰션을 그으며 준금의 얼굴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준금은 활짝 눈물을 쏟았다. 그 손을 칼처럼 맞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 모두 다 죽어야 한다. 준금은 방상을 발로 걷어쳤다. 우씨의 눈가가 번하더니 준금을 잡아서서 때리기 시작했다.

"엄마."
미자가 지른 소리였다. 준금은 바깥에 엎드려서 눈을 들었다. 어떻게 말았는지 어머니가 문지방을 차며 달려 들어온다.

빛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눈물로 번하고 장적끝에 어머니 멍하니 서계신 자리에 서 빛물이 흥건하게 풍수가 갔다.

또
의할머니는 밤새 소주를 마셨다. 대접으로 하나씩 마시며 야히죽 웃으며 입을 여시곤 했다. 길주야, 죄 짓지 마라. 니 크결망 죄 짓지 마라. 주름살 얼굴이 밀리도록 눈가를 닦으면 서 고쟁이 북주머니에서 몇 푼 돈을 꺼내고는 아나, 뭐 하나 사먹어라 하셨다. 여름도 깊어지면서 노을만 더해갔다. 저렇게 대머리 뒷산에 가득 펼쳐져 발잡게 빛을 띄울때면 길주는 때마침 흥시감 생각에 꿀떡대며 침을 삼킬 때도 많았다. 엄마가 때때로 두 한 켤레와 함께 없 어지던 날에도 길주는 흥시감 꿈을 꾸었 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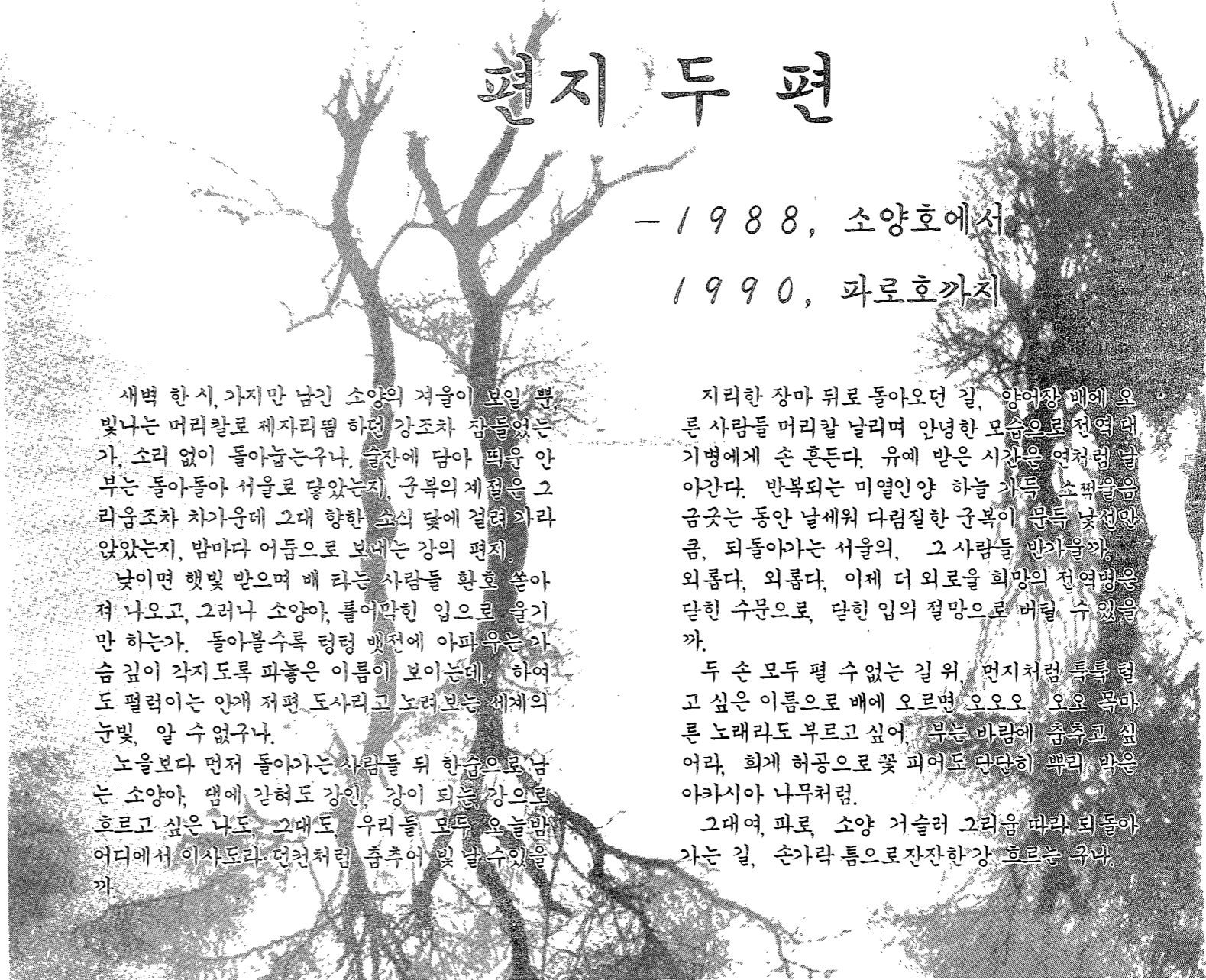
계속되던 모래 바람도 저번 폭우에 아 작은 자고 있고, 이젠 제법 풍동 샘 바다 에도 물기가 비쳐오고 있었다. 엄마가 지던 방에서 이모의 웃을 소리가 낯설게 바가지로 솟아나는 때가 종종 있기도 했 다. 어떨때는 길주가 몇 번을 도망 다녀 도 기어 불잡아 넣고 등을 밀어 주기도 했는데, 이리다가도 의할머니와 마주칠 때면 그만 슬그머니 들어가 버릴 때가 많았다.

"엄만 아테갔노. 할부이, 언제 오노."
"곧 올기다."
"이모는 저저 집에 안가나."

시부문 본상

편지 두 편

- 1988, 소양호에서
1990, 파로호까지



새벽 한시, 가지만 남긴 소양호의 저울이 보일 뿐 빛나는 머리칼로 제자리뿔 하던 강조차 잠들었는 가, 소리 없이 돌아놓는구나. 술잔에 담겨 띄운 안 부는 돌아돌아 서늘로 달았는지, 순복의 계절은 그 리움조차 차가운데 그대 향한 소식 닷에 걸려와라 앉았는지, 밤마다 어둠으로 보내는 강의 편지 낮이면 햇빛 받으며 배 타는 사람들 환호 쏟아 져 나오고, 그러나 소양아, 틀어막힌 입으로 울기 만 하는가. 돌아볼수록 텅텅 빈천에 아파우는 기 숨 깊이 각지도록 파놓은 이름이 보이는데. 하여 도 떨리는 이 언저 저편 도시라고 노력하는 세계의 눈빛, 알 수 없구나.
노을보다 먼저 돌아가는 사람들 뒤 함숨으로 남 는 소양아, 뺨에 갈려도 강인, 강이 띄는 강으로 흐르고 싶은 나도, 그대도, 우리들 모두 요늘함 어디에서 이사도라 던쳐처럼 추추어 빛 날 수 있을 까.

지리한 장마 뒤로 돌아오던 길, 양어장 배에 오 른 사람들 머리칼 날리며 안녕한 모습으로 전역의 기병에게 손 흔든다. 유예 받은 시기를 연처럼 날 이간다. 반복되는 미열인양 하늘 가득 소뿔알을 금구는 동안 날새워 다림질한 순복이 땀뾰 낫신만 음, 되돌아가는 서울의, 그 사람들 안기울까, 외롭다, 외롭다, 이제 더 외로울 희망의 전역명을 달린 수문으로, 달린 입의 절망으로 버릴 수 있을 까.

두 손 모두 펼 수 없는 길 위, 먼저처럼 특루 털 고 싶은 이름으로 배에 오르면 오오오, 오오 폭파 른 노래라도 부르고 싶어, 부는 바람에 춤추고 싶어, 회계 허공으로 꽃 피어도 단단히 뿌리 꽂은 아카시아 나무처럼.

그대여, 파로, 소양 거슬러 그리움 따라 되돌아 가는 길, 손가락 틈으로 잔잔한 강 흐르는 유년.

심사평

지방현군의 '편지 두편'을 당선작으로 뽑는다. 지군은 모두 5편을 응모했는데, 그중에서 '工事' 한 편은 약간 처지지만 나머지 4편은 그 성취도가 고르게 높다. 그리고 그 수준이 또한 전체 응모 작중 에서 발군의 역량이다. 특히 그의 시는 말솜씨가 능숙하고 세련되어 있다. 그리 고 거기에 보태서 발상도 새롭다. 그에게는 반짝이는 시적재능과 이미 쌓은 상당한 수력의 축적이 있기 때문에, 마음먹고 정진하면 좋은 시를 쓸 수 있을 것이다.

말솜씨 능숙 세련
시적재능과 상당한 수력 돋보여

이용석군의 '가을아침'과 정맹성군의 '사랑법 2'는 정려적으로 뽑았다. 이군은 신선한 감각과 간결한 언어가 돋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좀 가깝다는 느낌이 있다.
정군의 시는 어느 정도의 정신의 깊이를 획득하고 있다. 그리고 언어도 험프게 날비하지 않은 점이 좋다. 그러나 함께 보낸 다른 작품들이 처져 서 수준이 고르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한다.

김장호/이희기

입상소감

이십 년이 넘도록 홀로 삼남매를 키워 오신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님과 더불어 고마운 이들에게 부끄러운 시간이었다. 긴 군대생활을 마치고 신촌에서 문벌 던 살개월, 일 년 남짓한 학원생활, 너무 쉽게 세계를 탐아가는 공간에서 자꾸 비 통그리지만 했던 대학에서의 시간, 지 유희고 싶었으나, 나는, 병 안에서 과락 이는 새인 뿐이었다.

인간보다 중요한 인간의 삶, 따스한 마음이 살아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 평행 연어불은 기술의 낯선 하늘, 이라 고 써도 보는 이들이 하여금 편히 쉴 수 있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아-, 모두 함께 살아가는 세계는 어 떻게 해야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막상 당선통보와 함께 소감을 써 달라 는 전화를 받고 생각해보니 아무 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 게 그저 고맙고 부끄러운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바쁜 시간 쪼개어 작품 하나하나 워드로 정서해준 제희, 미흡한 저의 글을 받아주신 김창호 선생님과 이 형기 선생님께 부끄러운 마음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다 더 노력하라는 격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지방현
<불교대 불교학과>

서울고 문예부 시절, '날개를 가다듬 어라'라고만 적힌 카드를 친구에게 받았 었다. 칠 년 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 동안 나는 마구 형틀어져 있었다.

東大新聞社

한국문학을 이끄는
중추한 동국문학의 전통

그러나 그 전통 뒤에는 선배들의 정열적 작품활동과 재학생의 뜨거운 창작욕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80년대 '시인공화국'이란 남들의 부러움을 샀고 지금은 젊은 비평가들이 한국문학의 방향을 바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은 자칫

답보나 답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를 계승하는 왕성한 열기가 식지 않는 한 동국문학의 전통은 영원할 것입니다.

동국문학의 영원함. 한국문학의 버팀목, 동국문학 전통을 이어가는 재학생들의 꺼질 줄 모르는 창작열기.

본사가 재정해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동대문학상의 품입니다.

경주 도서관 공간·과포화 상태

학군단 학과실험실습실로 열람실 대부족 '학문탐구'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전용화 시급

1982년 건립돼 올해로 개관 10년째를 맞고 있는 경주캠퍼스 도서관은 급격히 변화해 가는 시대흐름과는 반대로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중 두드러지는 문제로 도서관 전용화, 전산화, 도서관구입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전용화

경주캠퍼스 도서관은 연면적 3천6백36평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서울캠퍼스의 2천6백25평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규모의 건물이다. 그러나 순수 도서관 목적으로 쓰이는 것, 즉 △일반도서실(1층) △참고도서실(2층) △정기간행물실(3층) △일반열람실(2층, 5층) △시청각실(4층) △복합실(2층) 등을 모두 합친 면적은 전체면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천5백여평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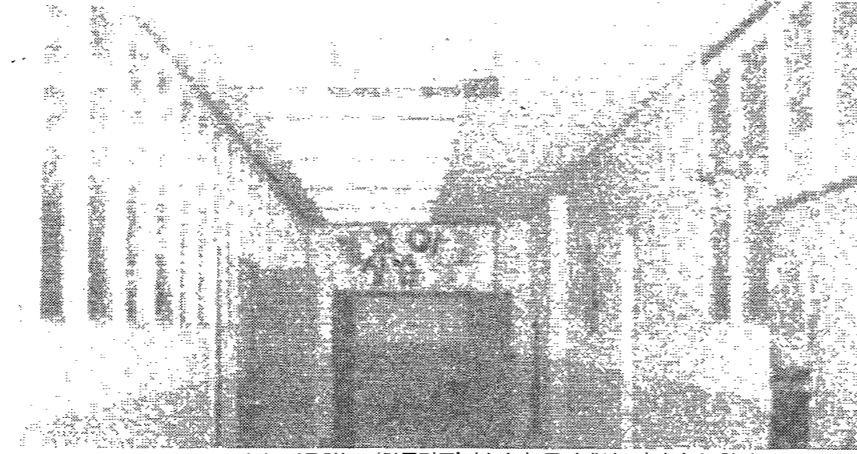
1층 일반도서 대출실의 경우 거의 포화상태로 도서관측은 "연평균 1인15권씩 증가하는 도서를 모두 수용하려면 서가 30개 정도 더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약 30평 정도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정된 공간에 비해 장서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공간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열람실 부족도 심각한 문제로 도서관은 다른 학교보다 규모에 비해 열람실 좌석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1·2·3·4층 열람실의 좌석수는 1천3백여석에 불과해 인문대 학생수만 2천명이 넘는 경주캠퍼스의 상황을 고려할 때 턱

없이 부족한 것이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중앙도서관 외에 각 단대별 열람실이 각각 마련되어 있으나, 경주캠퍼스는 도서관 뿐만 아니라 단대 건물도 공간문제가 심각해 이러한 형태는 고려해 볼 수도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도서관 공간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방안은 역시 '도서관 전용화'일 것이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군단으로 도서관 측은 공간문제도 문제지만 학군단이 여러모로 도서관과는 성격이 맞지 않음을 지적, 이전을 요구한다. 이와관련 학군단의 한 관계자도 "독립된 건물에 없으므로 해서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국방부 육군본부에서 내년부터 독립군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학군단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해준 데도 학교측에서는 신현제(영문학) 부총장이 지난달 29일 감사단장을 만나 "자연과학관 완공 후 조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재 도서관에는 조경학과 등 4개 학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각종 실험·실습실 등으로 많은 공간이 전용되고 있다. 조경학과와 전자계산학과는 경우 내년 3월 자연과학관이 완공된 후 내년에 전자계산학과 신설로 현재 8개학과에서 9개학과로 늘어나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불교이공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신설은 아직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없는 상태다.



▷경주캠퍼스 도서관 전용화는 '학문탐구' 본연의 목적에서 이뤄져야 한다.

전산화

도서관은 도서관과 대출반 업무, 행정합리화 차원에서 전산화가 어느곳보다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경주캠퍼스에서도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바코드를 이용한 인문출입관리 및 도서대출반납 업무를 실시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어 이것이 실시될 경우 사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구입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한 '한국도서관지 1991'에 따르면 1991년 현재 경주캠퍼스 도서관 장서수는 15만5천4백21권

이며 2천83종의 국내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학교보다 학생수가 월등히 많은 태대학 제2캠퍼스와 비교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기간행물비를 포함한 도서관구입비를 비교해 볼때 전체학생수 7천1백명에 1억1천만원만을 투자해 학생 1인당 1학기에 1만원씩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교육부 대학별 최저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위의 규정은 1983년에 제정되어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물가인상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 없는 인문상의 미비점이라 할 수 있다.

경주캠퍼스 도서관 실태와 관련 한 학생은 "도서관에 책은 많으면서 같은데 낡고 훼손된 것이 많으며, 그나마 필요한 책

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질적인 개선은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도서관측은 "이·공과 계열의 학과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에 따른 전문서적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며 경우에 도서관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불평이 있으나 '구인화향도서관' 정도를 통한 자료요청이 있으면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곧 구입해 놓겠다"고 밝혔다.

이상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도서관 전용화 문제는 공간부족이 도서관에 국한된 것이 아닌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나 도서관이 '학문탐구'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교측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취재부>

포항병원 7백평규모 증축추진 장기적 병원이전계획 검토돼야

경주캠퍼스 부속 포항병원(병원장=박수성·의학) 증축이 내년도 착공예정인 대학종합병원으로 들어갔다.

재단과 의료원은 지난 8월 포항병원 증축에 합의하고 의료원장, 병원장, 진료부장,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증축위원회를 구성, 현 포항병원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7백여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설계에 들어갔다.

이번 증축안의 내용을 보면 현 3백50병상의 병실을 약 1백병상 더 증설하고 수술실, 종합검진센터, 응급실등을 새로 설치했다.

또한 IBRD차관을 도입, 각종 최신의료기자를 구입해 명실상부한 대학종합병원으로 발돋움 하게된다.

지난 88년 포항기독병원을 인수, 불교정신 구원의 취지 아래 개원한 포항병원은 그동안 협소한 공간과 부족한 기자재 및 인력부족으로 환자들의 불편은 물론, 임상실습의 질적수준저하가 우려됐었다.

한편 포항병원은 지난 90년 도아도 대규모 증축계획을 세웠으나 재단내부 인사이동과 자금부족, 관계법률의 개정등을 이유로 취소된 바 있다.

포항병원 신임의 사무국장은 "이번 증축으로 포항병원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공간확보가 어느정도 해결됐지만 늘이는 환자수효와 병원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병원이전 등의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시배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봉정식

경주캠퍼스 '하산 김시배(경제학)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봉정식'이 지난 19일 오후 6시 조선호텔(만월성 대연회장)에서 교수, 동문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봉정식은 이시영(경제학) 교수의 사회로 김교수 약력 소개, 간행사, 논문봉정식, 축사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논문집은 김교수의 회갑을 맞아 경제학자로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같은학과의 교수, 동문 및 재학생들에 의해 간행됐다.

전국사립대 재정관리자 연수회 등록금 인상률 및 예고제 논의

전국사립대학 재정관리자 연수회가 오는 12월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간 속리산 관광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주요연수내용으로는 △사학기관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유의사항(유영장·교육부 대학재정과) △예산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주인기·연세대교수) △사무부족(장병수·연세대 감사) △등록금 예고제 시행방안(김병우·대학교육협의회) △연수원 등이다. 특히 이번 연수회는 다가오는 93년도 등록금 인상률과 관련해 사립대학 재정관리자들의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에서 사립대학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등록금 예고제 부분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교 예산조정과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립대학에선 공통적으로 등록금 예고제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일축했다.

경주 인북위원장 선출

경주캠퍼스 제8대 인북복지위원회 정·부회장에 유원석(법3)·이상수(사북3) 조가 당선됐다.

경주 총학 감사... '구멍' 관성적 사업작품 극복해야

경주캠퍼스 제9대 총학생회(회장=전종근·철4) 백성제 전 특별감사, 3/4분기 정기감사 및 각 학생회, 자치기구 정기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총대의 원회(의장=정영환·행정4)는 총학생회 주위 '92인주 백성제'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난달 15일 실시 할 예정이었으나 총학측의 일방적 자료 미제출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총대측에서는 4차례의 경고문 발송 후인 지난달 23일 총학측의 체육부장(이동욱·조경4)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받았으나 자료미비, 정산서미비, 총무부장(오승현·의학2) 등의 부재등을 이유로 감사 거부, 지난 6일 3/4분기 정기감사시 동시감사를 결정했다.

총대측은 6일 정기감사시 백성제전에 대한 감사자료뿐만 아닌 지난 6월 15일 이후 현재까지의 예산잔액추장부, 정산서 및 사업·공약금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총학측은 총무부장 부재, 정산서 미장부·자료 미제출로 총학선거 이후 감사실시를 요청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총대측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총학생회를 시작으로 각 학생회 및 자치기구

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자료제출이 지연되고 각 기구 집행부들의 결속이 각자 안되고 있다. 이제까지 특별감사 및 정기감사가 실시되지 못한 실질적인 이유는 자금지출장부 및 공약자료등의 기본적 감사자료가 제출되지 못한데에 있지만 그보다도 먼저 지적되는 본원적 원인은 학생기구 집행부들의 느슨한 사업적정확과 감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에 있다.

이에 총대감사국장(정은재·관경4)은 "이번 감사를 위해 매년 총학 사무실에 가보았지만 집행부들도 잘 만나 볼 수 없었고 만나도 성실한 답변을 하고있지 않다. 총학이 이런 불성실한 태도로 사업을 계속해나간다면 '탄핵' 또는 불사 하겠다"는 강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으나 총학측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총학을 비롯한 각 기구에 대한 감사가 앞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학생기구로의 이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돼 이후 총대측의 대응방향이 주목된다.

<김태성 기자>

93학년도 전기대학 합격자 안내

본사에서는 93학년도 전기대학 합격자상황을 오는 12월 31일을 전후로 안내해 드립니다. 수험생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전화는 동대신문사 (02) 260-3491~2

대경총련 '민자당 집권저지...' 선운본 결성 정권교체 통한 민주정부수립 결의

대경총련지역 총학생회 연합(이하 대경총련)은 '민자당 집권 저지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대경총련 선운본(본부장=윤한봉·대경총련의 장원한대행) 결성식'을 지난 21일 오후2시 계명대 노천강당에서 가졌다.

윤본부장은 대외사를 통해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어느때보다 높은 시기이기에 민주적인 대안들을 정립, 선전해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열망을 통해 '92년에서는 민주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들을 재정립 선전에 나가자"고 밝혔다.

또 정치 연설에서는 김창호(경북대 부총학생회장), 최종원(대구대 총학생회장) 군 등이 "부정선거 저지, 공정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회의 강화와

범민주 후보 단일화'에 대해 각각 연설했다. 이날 결성식에서 대경총련 소속학생들은 △92대선 민주정부 수립 △부정선거 감시단 강화 △투표 적극참여 △대구지역 선전활동등을 헌설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학생 1백여명은 오후 5시부터 대구역, 대구백화점등에서 시민홍보를 통해 민주정부 수립과 공정선거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하며 높은 선거참여율로 이번 선거에서는 범민주 세력을 몰아내고 꼭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을 선언했다.

경주, 민선대본 발족 민중대통령후보 지지

경주 민중대통령 배기완 후보 선거운동본부발족식이 지난

19일 오후8시50분 총여유게일에서 열렸다.

이날 경주시민 민중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선출권장지(사단당추진위원회) 씨의 발송추진문을 통해 '재벌해체, 토지구유화 및 군비축소를 중심으로 한 사회개혁과 민중대통령 후보 지지'를 강조했다.

상경대 컴퓨터실 개원

경주캠퍼스 상경대 소속 경제, 회계, 정보관리 등 3개학과는 진흥로(B501) 강의실에 컴퓨터실을 설치하고 지난 19일 오후1시 개원식을 가졌다. 이번 컴퓨터실은 총24대의 286기종 컴퓨터와 2대의 프린터를 설치해 3개학과가 공동관리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인터뷰 "과외학생회 활성화가 과제"

제9대 총여학생회회장에 당선된 송기애(철학4) 양을 만나 총여학생회의 사업과 위상에 대해 물어보았다.



송기애 총여회장

—총마히게 된 동기과 당선 소감은

—여학생들 사이에, 아직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총여학생회가 이제 제대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 총여학생회에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2천4백여 학생들과 함께 총여학생회의 올바른 자리를 찾기위해 노력해 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총여학생회의 위상은

—총여학생회는 과외학생회와 연계하여 여학생들의 생각을 수용해내는, 여학우들 스스로 일어서는 자제적 조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9대 총여학생회의 최대 중점 사업은

3대째 계속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과외학생회의 활성화입니다. 과외학생회가 기초가 되어 총여학생회로 이어져야 총여학생회 혼자만으로는 여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은 힘들어지고 생각합니다.

—공약중 과외학생회장 장학금 지급과 연휴제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연휴제 폐기 여력이 이미 있었고 축제가 너무 향락적이

고 소비지향적인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 올바른 축제문화를 지향한다는 뜻에서 연휴제를 폐기하고 그 예산으로 다른 수익사업을 해서 과외학생회장에 게 지급할 장학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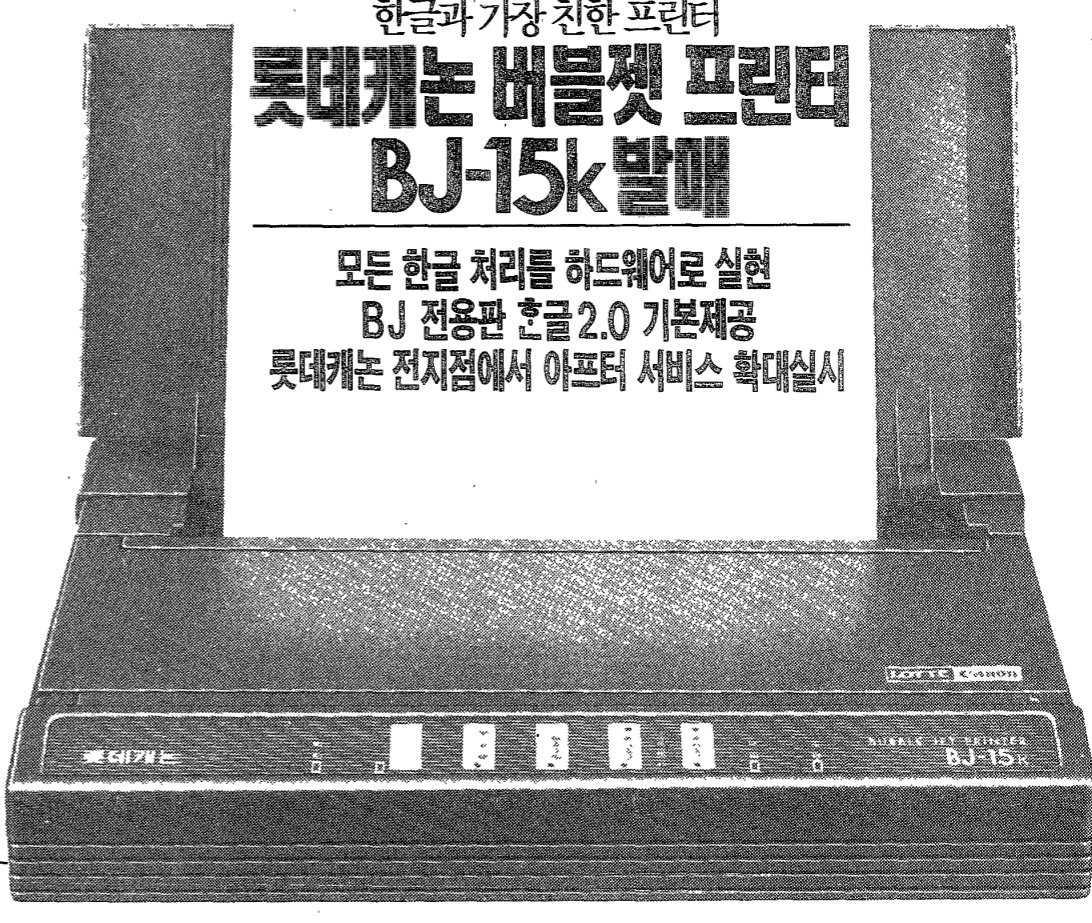
여학생들이 총여학생회 만큼이나 총여학생회를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총여학생회의 주인은 바로 여학생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올바른 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총여학생회는 너무나도 작은 조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소극적인 사고의 틀을 부수고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경옥 기자>

LOTTE Canon 앞서가십시오 - 롯데캐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롯데캐논

한글과 가장 친한 프린터 롯데캐논 비블렛 프린터 BJ-15k

모든 한글처리를 하드웨어에서 지원, 한글 출력이 훨씬 빠르고 선명합니다



한글과 가장 친한 프린터 롯데캐논 비블렛 프린터 BJ-15k 발매

모든 한글 처리를 하드웨어로 실현 BJ 전용판 한글 2.0 기본제공 롯데캐논 전자점에서 아프트 서비스 확대 실시

<p>모든 한글처리를 하드웨어에서 지원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로 한글을 지원할 때의 번거로움이 완전히 해소, 출력 속도가 두배나 빨라졌습니다.</p>	<p>360dpi의 놀라운 해상도 롯데캐논의 독자적인 프린팅 기술로 Draft출력시에도 레이저 프린터와 같은 깨끗한 해상도를 유지합니다.</p>	<p>1/4 축소 가능 A2크기의 문서도 A4크기로 축소 출력할 수 있는 1/4 축소 기능으로 큰 문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p>	<p>BJ-15k에 대한 상세한 문서는 (02) 569-0403</p>
<p>BJ 전용판 한글 2.0 기본 제공 최신의 워드프로세서 BJ 전용판 한글 2.0을 기본 제공, 모든 기능을 360 dpi의 고해상도로 얻을 수 있습니다.</p>	<p>간편한 한글 조작 패널 모든 패널이 한글화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p>	<p>좁은 공간에서도 간편한 사용 자동날장 공급장치에 NiCd 배터리를 합쳐도 무게가 겨우 3.2kg밖에 안돼 어디서나 사용이 간편합니다.</p>	<p>LOTTE Canon (주)롯데캐논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42번지 5층 1992, FAX 536-1861~2</p>

- | | | | |
|---|---|--|--|
| <p>● 서울지점 02-561-1962
● 부산지점 02-396-6984
● 대구지점 02-394-6831
● 대전지점 02-562-1892
● 광주지점 02-342-4928</p> | <p>● 인천지점 02-438-1362
● 수원지점 031-251-1992
● 성남지점 031-759-1779
● 안양지점 043-122-1962
● 고양지점 031-463-0903
● 김포지점 031-941-1992</p> | <p>● 대구지점 053-511-3440
● 대전지점 052-819-1992
● 충청남도지점 082-81-1892
● 충청북도지점 081-616-1992
● 강원도지점 033-251-3533</p> | <p>● 대전지점 042-718-9242
● 충청남도지점 081-867-1940
● 충청북도지점(대주) 053-654-1778
● 서울특별시(북구) 02-523-9791
● 서울특별시(동부) 02-512-2841
● 서울특별시(남부) 02-511-1771</p> |
|---|---|--|--|
- * 유사인증을 사용하든 도움이 약하거나 인자 용량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배낭여행을 떠나려는 이에게

단순한 관광은 이제 그만

미숙한 여행의식 자제해야

시간은 어느새 동양의 학우들을 기나긴 겨울방학의 문턱까지 데려다 놓았다.

3개월 남짓되는 이 기간동안, 그 일부를 때내어 젊은이들은 이상과 환기를 배낭여행에 담고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많은 학생들. 그들의 발걸음은 약속되지 않은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 때문인지 다소 어색하기까지 하다.

오래 인생을 여행에서 맛보는 것까지 삼척의 어우러짐에 비유하여도 하듯 경험을 쌓고 자신만의 추억의 땅을 옮겨다니는 여행이란 것이 없다. 그러나 또한 여행은 벗어난 우리와 다른 문화·환경속의 사람들과 접할 수 있는 해외여행인 경우 그 의미는 사뭇 다른 것이다.

그러나 요즘 우후죽순처럼 팽창하고 있는 여행사들의 무분별한 해외여행 광고의 발달과 뚜렷한 목적의식이 단순한 관광차원의 여행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미숙한 여행의식이 맞물려지면서 여행의 참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적지않은 사회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89년 해외여행

자화화 조지에 의해 많은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붐을 뜨기 시작했으며 그 여행의 형태에 있어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배낭여행의 급격한 확산이다. 연간 여행을 목적으로 해외는 찾는 인원은 약 1만여명 정도이고 그 중 대기가 여름·겨울방학을 맞아 배낭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생들이다. 이들은 주로 2인이 1조가 되어 여행을 하기도 하고 10~20명씩 단체를 이루기도 한다. 최근들어와서는 혼자 여행을 즐기는 사람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들이 주로 떠나는 여행지로는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이 포함된 유럽지역이 대표적인 여행코스이며 일본, 미국,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등의 동유럽, 태국·말레이시아의 동남아시아권이 그다음 선호지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행의 비용, 경로, 목적 등도 다양하다.

한달여 정도의 유럽여행인 경우 항공권과 숙박비, 식비, 기타 생활비를 포함 170~200만원정도이면 무리없이 여행을 할수있으며 여행 경로 또한 20여가지의 코스가 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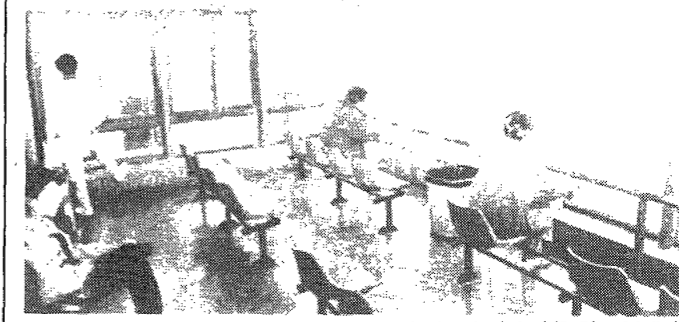


◇겨울방학동안 해외 배낭여행을 떠나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새로운 세계로의 만남이라는 의미는 종지만 수박겉 핏기시 관광여행은 지양되어야 한다.

되어 있어 여행하고픈 나라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 전형적인 유럽 여행코스로는 런던을 출발해서 파리, 마드리드, 리스본을 거쳐 베네치아, 빈을 경유하는 여행경로가 손꼽힌다. 여행목적면에서도 건축·지리·역사 등의 학과 특성에 맞추어 전문적인 지식과 체험을 습득하기 위해 떠나는 학생에서부터 어학연수, 모험·단체의 학술여행, 단순한 관광여행에 이르기까지 다채롭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하고 자유로운 배낭여행은 그 경제성과 자율성에 큰 매력 있지만 여행전 구비해야 할 서류준비나 여행자의 책임·의무 면에서 볼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여행시 갖추어야 할 서류를 살펴보면, 여권과 비자 국제학생증, 유스호스텔증, 기자자유이용권 등이 필요하며 특히 숙박·교통의 약 5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제학생증은 배낭여행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증서이다. 또한 대학생이면서 미필자인 경우에는 학교측의 서류하기를 받아야하는데 이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형식적이어서 문

◇학내 휴게실 실태를 점검한다



◇학내 휴게공간 확보율은 타학교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부족한 공간에다 휴게실로는 미비한 시설 탓에 이를 찾는 학생들은 드문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의 면적은 얼마나 될까?

90년도에 학교에서 조사·발간한 '자체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은 1인당 0.09㎡의 휴게공간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밝히고 있다. 조사 당시나 지금이나 휴게실의 확충 또는 신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위수치가 현 학내 휴게실 실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위문적은 타학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휴게시설이 비교적 잘려있는 연세대학교 영남대의 경우

런계 해 열람실 이용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동국관 5층 로비 휴게실은 동국관 1층 확장공사때 학생회의 건의로 의자를 설치하는 정도로 그쳤다.

연마전 동국관 내 대관대 학생회실에서는 후보들이 주요복지공약으로 식수대 설치, 간단한 음료및 문구류를 판매할 수 있는 간이매점 설치등을 내걸었다. 동국관 5층 휴게실을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 '미리 내팔'이라 정하고 개별휴게실로서의 대안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야간강

'학내 휴게실이 변변치 않으니 학외에 유흥업소가 생겨날 수밖에'

우 차·음료등을 구비한 휴게실이 4~5개가 운영되고 있고 음악감상실과 상설영화상영관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본교 학내 휴게실공간은 협소한 공간일뿐 아니라 시설 미비로 휴게실로서의 효용도가 크게 떨어진다.

현재 학내에는 학생회관 1층, 동국관 5층, 해화관 2층에 휴게실(로비)이 있고, 도서관 4층, 여학생회관 4층, 야간강과 여학생 휴게실이 있다.

이밖에 최근에 학교에서 설치한 원형관 뒷편과 학생회관 뒷편에 휴게공간이 마련되고 있다.

이들 휴게공간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학생들이 이용할만한 시설이 미비하고 좌석이 낮은 것도 많은 편이다. 건물 외부에 설치된 휴게실은 주위 환경 조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휴위에 의지한 놓은 꼴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의 이용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고 편히 쉬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될 리도 없다.

또한 도서관 4층 휴게실은 밤이면 조명등이 어둡고 좌석수도 적어 학생들이 휴게실은 이용하지 않고 열람실 복도에서 휴식하고 소란스

와 총학생회 박정진(무역3) 신인학 생활장은 "학내외와 연계해 간이매점설치를 구제하고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시설확충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휴게실 관리에 학교측 복지정책은 부실하기만 하다.

학생회관, 공대 휴게실은 설치 이후 홍보도 되지 않았고 주위에 수목을 심는등의 환경조성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또한 학내외의 간이매점 설치등은 수익사업의 의도일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어 휴게실에 걸맞은 시설확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욱이 동국관측후방관 건물으로 미술학과 실습실을 휴게실 위치인 동국관 5층, 해화관 2층등으로 배치결정을 했기때문에 휴게실공간은 전무하게 될 실정이다. 공간간이변 보 리수위에 있는 변변한 휴게공간이 없는 상태이고 보면 후문밖에 유흥업소가 늘어나기만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이제 학교·학내외·학생회 모두는 학생들의 여론을 모아 한정된 공간이나 시설을 확충해 효율적 휴게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 차·음료등을 구비한 휴게실이 4~5개가 운영되고 있고 음악감상실과 상설영화상영관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본교 학내 휴게실공간은 협소한 공간일뿐 아니라 시설 미비로 휴게실로서의 효용도가 크게 떨어진다.

현재 학내에는 학생회관 1층, 동국관 5층, 해화관 2층에 휴게실(로비)이 있고, 도서관 4층, 여학생회관 4층, 야간강과 여학생 휴게실이 있다.

이밖에 최근에 학교에서 설치한 원형관 뒷편과 학생회관 뒷편에 휴게공간이 마련되고 있다.

이들 휴게공간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학생들이 이용할만한 시설이 미비하고 좌석이 낮은 것도 많은 편이다. 건물 외부에 설치된 휴게실은 주위 환경 조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휴위에 의지한 놓은 꼴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의 이용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고 편히 쉬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될 리도 없다.

또한 도서관 4층 휴게실은 밤이면 조명등이 어둡고 좌석수도 적어 학생들이 휴게실은 이용하지 않고 열람실 복도에서 휴식하고 소란스

문화 단신

공연안내

◇연극인들가...하연의 연극이 기획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펼쳐 보일으로써 더러는 연극이 지니고 있는 신비감을 반감시키는 열정적 구도적인 진지함, 공감대를 확대시키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꾸밈없이 펼쳐 보인, 12월 31일까지 평일 오후4시30분, 7시30

분 주말오후 3시30분, 6시30분, 열음소극장, 764-1378.

◇우리가 함께가는 길...김광석, 안지환, 배종환이 출연하는 학원 겨울 콘서트. '노래를 찾는 사람들'에서 같이 활동했던 이들은 그동안에 각자 지속적인 음반발표와 콘서트 활동을 통해서 관객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시도함으로써 운동권의 '경향성'을 넘어선 '대중성'을 확보해 가는데 노력한 성과물을 이번 콘서트에서 선보인다. 12월1일부터 21일까지 월·화·수·목 7시, 금·토·일 4시, 7시, 학전소극장, 763-8233.

청소년에게 우리문화에 대해 올바른 이해하고 우리문화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열리는 문화행사. 12월8일부터 29일까지 매 주 화요일 오후 7시, 홍사단 강당, 743-5454.

시간안내

◇광고광고 일본...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실상을 제대로 그려볼 수 없는 일본을 소개하는 광고를 정리해 놓았으며 일본이 오늘날 일본의 광고로써 군림할 수 있었던 제반사정들을 분석·전망한 책. <도서출판진화> 1만2천원

공명에 대한 상용자동차사업 신규 허가, CATV사업허가는 또 어떻게...지남해 대학평가제에서 B급 판정을 받게 하는 등 우호조조에 쓰신 우리학교 총장님께 감히 여쭙습니다. 장·중·단기의 종합계획안은 어디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학교 재단, 중단, 동문이 과연 '하노리'인가? 교수님들의 연구

감히 묻습니다.

환경은 좋아졌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수교수 확보는요. 해마다 발생하는 신규교수채용의 문제는 무엇을 뜻하죠. 동국학술문화관은 혹시 허술좋은 말은 아닐런지요. 당장 기계공학, 미술학과 학생들은 강의실, 실험실이 없어요. 이라는데요. ▲민중의 새시대를 열아가는 제24대 총학생회장님께

감히 묻습니다.

환경은 좋아졌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수교수 확보는요. 해마다 발생하는 신규교수채용의 문제는 무엇을 뜻하죠. 동국학술문화관은 혹시 허술좋은 말은 아닐런지요. 당장 기계공학, 미술학과 학생들은 강의실, 실험실이 없어요. 이라는데요. ▲민중의 새시대를 열아가는 제24대 총학생회장님께

알아들시다 바코드

내년이면 중앙도서관 구비 도서마다 바코드를 부착, 전산화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최근 출판물에는 어김없이 국제, 출판사, 도서종류등을 판독할 수 있는 바코드가 부착되어 발간되고 있다. 또한 조그만 과거부터 각종 음식물까지 바코드가 가격표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바코드는 70년대 이후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의 판독과 기록의 전산화를 꾀하기 위해 고안된 응용컴퓨터 기술중의 하나다.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은행카드, 지하철 표등도 이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이용 초기에는 자기를 이용하여 판독했으나 요즘 기계들은 저의 선 빛으로 각기다른 막대의 두께와 여백을 '스캐너'라는 기구로 문자화시켜내 화면을 통해 나타나는 기술이 일반적으로 쓰인다.

본교 중앙도서관에서 이 바코드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각학생들 고유번호를 학생증에 바코드로 표시하고 도서에 바코드로 등록번호를 기록해, 도서 대출시 학생증과 도서관 가져가면 대출이 가능해지므로 도서차량중에 기입할 필요가 없게된다.

또한 바코딩기 설치와 더불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구비되면 부수적으로 도서목록이나 자신의 도서대출내역을 검색할수도 있게될 여러모로 편리하다.

▲이 나라의 진정한 보통정치는 대통령에 감히 묻습니다. 지난 5년이 과연 보통사람들을 위한 정치였나? 그 민생인정 때문에 선진화 법외의 잔정 덕에 가정에서, 거리에서 무심결에 접하게 된 사람들이 한들이 아니라는데요. 그리고 정권말기 7대 대규모 사업(이른바 의류사업)들은 또 어떻죠. 이것이 진정한 보통사람들을 위한 것인지요. 보통사람들은 날마다 지역 안에서 죽음을 도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버스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15조원씩이나 들여 경부고속철을 꼭(?) 만들어야겠지요. 게다가 가뜩이나 끝날을 시투같은 수도권이 터져버리는 걸 보지 못해, 그리고 공해로 희뿌연게 된 수도권이 새가발개 퍼는걸 보고 싶어서 영종도 신국제공항을 건설해야겠지요. 제2이동통신, 삼성중

공원에 대한 상용자동차사업 신규 허가, CATV사업허가는 또 어떻게...지남해 대학평가제에서 B급 판정을 받게 하는 등 우호조조에 쓰신 우리학교 총장님께 감히 여쭙습니다. 장·중·단기의 종합계획안은 어디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학교 재단, 중단, 동문이 과연 '하노리'인가? 교수님들의 연구

감히 묻습니다.

환경은 좋아졌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수교수 확보는요. 해마다 발생하는 신규교수채용의 문제는 무엇을 뜻하죠. 동국학술문화관은 혹시 허술좋은 말은 아닐런지요. 당장 기계공학, 미술학과 학생들은 강의실, 실험실이 없어요. 이라는데요. ▲민중의 새시대를 열아가는 제24대 총학생회장님께

20일 7시 서술역량

고속전철 완만야나!

모가지가 걸린 일인데...

대안을 내놓으면 되잖아!

대안이 나오면?

그 전문지식을 알겠어요? 시간절과 대신에 누가 뽀미나 보고 결정하죠!

최경인 <12>



1990년 7월 19일 마북리연구소 엔지니어링부 설계 과 이주한

이주한 氏의 "지우고 싶은 대기 현황판"

어제 저녁, 6개월 만에 만난 대학 동창과의 한 잔 때문에 오늘 아침은 유난히 서늘하리만 했다. 동국버스가 시창을 지나칠 무렵, 어느날처럼 눈이 들어오는 대기현황판. "현재의 대기환경상태 - 나뭇"

용인군 마북리의 상쾌함, 그리고...

복잡한 시대를 벗어난 동국버스는 용인, 마북리연구소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다. 이곳에서 나의 임무는 엔지니어링과 제어부분... 그래서 매일 지나치는 대기현황판의 '나뭇'이란 글자가 머리속에 맴도는 것도 바로 자동차엔진과 관련된 나의업무 때문인지도 모른다.

린엔진 개발성공, 그 짜릿한 희열이후...

입사 후 3개월, 나는 작은 출발을 시작했다. 대기공해를 줄이는 초저연비 린엔진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비록 내가 한 일은 미미했지만 대기오염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뿌듯함이란... 그래서 마음 한구석엔 '나뭇'을 가리키고 있던 대기현황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현황판 수치가 고쳐질 그날을 위하여...

출근길에 마주치면 늘 찡찡했던 현황판 수치. 하지만 이러한 나의 노력과 작은 보탬들이 하나둘 쌓여 빛을 발하게 되는 날, 거리의 많은 차들이 무공해 차량으로 바뀌고 대기현황판의 수치가 고쳐질 수 있리라.

대기환경상태

나뭇

20 40 60 80

0 100

관 경 처